건축물 일조권 확보 거리 규제 일부 완화

높이 10~17m 건축물 한해 대지 이격 거리 5m 조정
영리 노린 고의적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규정 강화

제주도가 일조권 확보를 목적으로 건축물을 지을 때 인접한 대지와 일정 거리를 두도록 한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0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높이 10m(3층) 초과, 17m(5층) 이하 건축물에 대해선 북쪽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5m 이상만 떨어지면 건축할 수 있게 했다.

현행 조례는 높이 10m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축물 높이의 절반 이상을 북쪽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떨어뜨려야 한다.

가령 높이 16m 건물은 그동안 인접 대지와 8m를 떨어뜨려 지어야 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격 거리를 5m만 확보하면 된다.

단 높이 10m 이하 건축물은 기존과 같이 1.5m 이상을, 17m 초과 건축물도 기존처럼 높이의 절반 이상을 떨어뜨려야 한다.

건축법 위반 건물에 대한 양성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행 강제금 기준도 손질된다.

기존에는 위반 건축물 적발 전에 건축주가 자진 신고한 경우에만 이행강제금의 50%를 감면했으나 앞으로는 위반 사항이 적발된 후 건축주가 양성화를 신청하면 같은 감면 기준을 적용 받는다. 그러나 이는 건축주가 건축법을 잘 몰라 법을 위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반면 영리를 노리고 고의적으로 건축법을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이 현행 20~100%에서 50~100%로 상향된다.

제주도는 건축 민원 처리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제주지역 건축허가 평균 처리기간은 2024년 43.3일에서 지난해 38.1일, 올해 36일로 줄었지만 양행정시별로 건축 민원을 상대할 때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거나 행정편의를 위한 보완 요구, 장애인 편의시설 협의 과정에서 반복적인 보완·재협의가 많아 개선 과제로 꼽혔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담당자가 건축허가 신청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때 상급자의 결재를 받게 하고, 단순 서류 보완은 접수 후 3일 이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

또 오는 12월까지 행정시별로 다른 건축민원 처리 기준을 통일해 세부 업무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건축허가 과정에서 불합리한 보완 요구 등을 조정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상설 운영할 계획이다.

현주현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려면 인허가 과정의 규제혁신이 시급하다"며 "합리적인 건축 규제 개선과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 절차로 도민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황감귤' 첫 경매서 3kg 최고 5만8000원

중문농협 신규 브랜드… 고품질 선별로 고급화

중문농협이 선보인 신규 프리미엄 감귤 브랜드 '제황감귤'이 3kg기준 최고 5만8000원의 낙찰가를 기록했다.

중문농협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새벽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서울청과에서 진행된 '제황감귤' 첫 경매에서 3kg 기준 최고 5만8000원과 5만원의 낙찰가를 보였다.

'제황감귤'은 당도 15브릭스(Brix) 이상의 고당도 감귤만을 엄선한 중문농협의 신규 프리미엄 브랜드로, 철저한 당도 선별과 품질 관리를 통해 균일한 상품성을 확보하고 제주감귤의 고급화와 농가 수취가격 향상을 위해 개발됐다.

중문농협측은 첫 경매에서 높은 낙찰가를 보인 만큼 고당도 감귤의 시장 경쟁력과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중문농협 김성범 조합장은 "제황감귤의 첫 경매 최고가는 고품질 감귤 생산과 철저한 선별이 농가 수취가격 향상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보여주는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소비지 유통시장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제주감귤을 생산해 농가소득 증대와 제주감귤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도내 1098가구 내 집 마련 이자 부담 덜어

도, 신혼·출산 가구에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가구 증가… 내년 확대

제주특별자치도가 '하영드림 주택 마련 지원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 가구 1098가구에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했다.

이 사업은 주택 구입자금 대출금 3억원을 한도로, 가구 특성에 따라 최대 1.5%의 지원율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사업 예산은 29억800만원으로, 가구당 평균 264만8000원을 지급했다.

올해 지원 가구는 다자녀 가구 786가구와 1자녀 가구 312가구를 합쳐 총 1098가구로, 지난해 524가구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지난 5~6월에는 총 2016가구가 신청해 지난해 1151가구보다 신청 가구도 약 75% 증가했다.

제주도는 다자녀 가구, 1자녀 가구, 신혼부부 순으로 우선순위를 적용하고, 같은 순위에서는 소득이 낮은 가구부터 선정했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 내 주택을 구입해 실제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 가구다.

올해는 2019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했거나 막내 자녀가 출생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에는 입양 자녀도 포함한다.

대출 대상 주택 한 채만 소유한 가구여야 하며, 해당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가격이 6억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기준은 부부 합산 연소득으로 정부 지원 대출을 받은 경우 1억원 이하, 민간은행 대출을 받은 경우 1억3000만원 이하를 적용한다.

제주도는 결혼·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에도 사업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주현 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민의 주거안정과 저출생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미래세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성큼 다가온 크리스마스 1일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장식되어 있다. 유통업계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대형 조명과 미디어아트, 크리스마스 마켓 등을 선보이며 연말 고객맞이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기관 유치 범도민 운동에 7만명 이상 참여

두 달여 만에 7만3000명 서명

제주도가 한국마사회 등 2차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진행한 범도민 서명 운동에 7만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차 공공기관 유치 범도민 서명운동 참여 인원이 지난달 30일 기준 7만3000명을 넘어섰다고 이날 밝혔다.

서명운동은 공공기관 제주 유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유치를 바라는 도민의 뜻을 모으기 위해 지난 8월 21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서명운동에는 도민을 비롯해 재외 제주도민회와 명예도민, 기관·단체, 대학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해 힘을 모으고 있다.

또 제주도는 유치 희망 공공기관을 방문할 때 서명운동 참여 현황도 함께 알려 도민 뜻을 전하고 있다.

이상민기자

"위성곤 도정, 제2공항·BRT 책임 떠넘겨"

국힘 제주도당 논평서 주장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제주도정이 제2공항과 제주형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사업에 대한 책임을 도민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논평을 통해 "위성곤 도정이 해상풍력 사업에는 속도를 내면서 제2공항과 BRT 문제에 대해서는 도민 의견 수렴을 앞세워 정책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제2공항 정책에 대해선 "위성곤 지사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러한 절차가 실질적인 갈등 해소와 책임 있는 정책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며 "갈등 조정 절차가 오히려 또 다른 갈등과 불확실성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형 BRT에 대해선 "위 지사는 지방선거 당시 제주형 BRT와 섬식정류장 전면 재검토와 폐지를 약속했지만 당선 이후에는 '도민의 뜻에 따라 결정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고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는 폐지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도 도민 설문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정책 방향을 밝혔으면서도 다시 설문조사를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와 그 결과를 어떤 원칙으로 해석하고 정책 결정에 반영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민기자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3398호

분묘개장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묘 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분묘의 연고자가 없는 경우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소 재 지	기수	비고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447	1기	공고(2차)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459-23	1기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1568-10	1기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1605-6	1기	

2. 개장사유 : 토지정리 및 재산권행사
3. 개장 후 안치장소 및 봉안기간
◉ 안치장소 : 서귀포시 돈내코로 295-28, 서귀포추모공원 봉안당
◉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5년
4. 개장방법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공고기간 경과 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장
5. 공고기간 : 2026. 10. 30. ~ 2027. 1.29.(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신고 및 문의처
◉ 신고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과) ☎ 064)710-2723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노인복지과 ☎ 064)760-6522
7. 신고시 구비서류
◉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 할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족보, 기타 증빙서류 등)
8. 기타사항 : 개장 전 식별이 현저히 어려운 '합장 분묘'의 경우, 부득이 이 공고로 분묘 개장공고를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 개장공고를 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삼육두유

우리가족 건강음료, 삼육두유

설탕을 넣지 않고 고소하고 부드러운 콩 그대로의 맛을 살린 절대 모방할수 없는 맛



삼육식품 www.sahmyook.co.kr

제주도총판 대표 윤 봉실 064)757-14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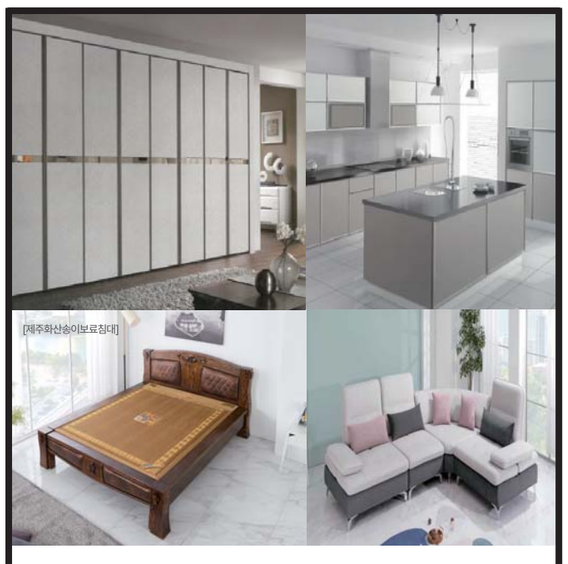
머무는 시간이 행복해지는 공간, 당신의 이야기로 채우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시공!
믿을 수 있는 인테리어, A/S 보장

동서인테리어

건축 / 실내 토탈 인테리어 / 욕실 / 거실 / 상가 등

시공문의 064) 758-0015



일상이 새로워지는 오늘을 담은 가구

우수한 제품과 합리적인 가격! A/S보장
신구간 맞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동서가구

씽크대 제작 / 붙박이장 / 침대 / 소파 / 가구 일체

구입문의 064)758-0065